

자사고 재지정 기준 80점으로 상향

김승환 교육감 “자사고 ‘폐지’가 맞지만 현실적 한계 있어”

전북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기준을 80점으로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17일 김승환 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부처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하는 게 있다. 하나는 ‘현법’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공약’이다”면서 “자사고에 대한 대통령공약은 ‘폐

지’인데, 그렇다면 교육부 정책도 폐지쪽으로 방향이 맞춰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 정책은 대통령 공약인 ‘자사고 폐지’와는 많이 다르다. 김 교육감은 “이명박정부 때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가 70점이었던 것을 박근혜정부에서 60점으로 낮

다. 이 60점은 어느 학교라도 기본 운영만 준수하면 무난히 받을 수 있는 점수다. 교육부가 이번에 자사고 재지정 점수를 70점 이상으로 상향했지만 원상조치 한 것에 불과하고, 70점은 전북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받을 수 있는 평이한 기준”이라면서 “이는 결국 대통령공약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점수를 80점 이상으로 했다”면서 “교육감 스스로는 자사고 폐지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평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청은 내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평가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소재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베트남 다락성 공무원들을 초청해 농업 분야 연구를 진행했다.

베트남 다락성 농업 분야 공무원 초청 연수 실시

선진 농업 기술발전 경험 공유

전북대학교 소재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이하 ‘센터’, 센터장 이옥현)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베트남 다락성 공무원들을 초청해 농업 분야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우리의 앞선 농업과 기술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센터 설립 후 처음으로 진행된 것이다. 특히 베트남과 전북 지역 간 농업의 특징을 비교하고 이해하며 농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및 정책 등을 베트남에 적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진행됐다. 베트남 관계자들은 ODA(공적개발 원조)사업 경험이 있는 국내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고 농촌진흥청과 전북

농업기술원,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등을 찾아 이론과 실재를 모두 체험했다. 마지막 날에는 베트남 다락성 농업 분야에서 실제 적용 해 볼 수 있는 액션플랜(Action Plan)을 직접 작성해 보며 베트남 농업의 전문 인력 양성, 우량품종 육성, 기반시설 마련, 유통 및 마케팅 강화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한 세부 계획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응우옌 학히엔 베트남 농업농촌 개발협력부 과장은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과 유통이 인상적이었으며, 다양한 기관 방문으로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어 매우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베트남으로 돌아가서도 이 초청연수를 밑거름 삼아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수험생 위한 정시 대면상담실 가동

전년도 자료 통해 가능 여부 상담

전북교육청은 2019학년도 정시 지원 수험생을 위한 대면상담실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도교육청 7층 대입진학 지도지원실에서 18일부터 28일(토·일/공휴일 제외)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방문순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총32명의 대입 상담교사들이 대면상담에 임하며,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수능성적표와 지원 대학 학과를 준비해 오면 전년도 입시결과 자료를 통해 2019학년도 정시지원에 대한 가능 여부를 상담하게 된다. 특히 상담 기호가 적은 재수생, 검정고시 학생들에게도 정시 지원 가능 대학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산과 익산에서도 별도 대면 상담실이 운영된다. 군산, 익산 교육지원청에서는 20~21일 이틀간 정시 지원을 돕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시에 지원하는 학생은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 및 학과에 대해 답답 선생님과 상담이 먼저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좀 더 궁금한 내용의 상담을 위해서는 18일부터 운영되는 정시 대면상담을 통해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 및 학과에 대해 지원전략을 세워 지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육청이 17일 본청 정책협의실에서 공약관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도민 의견 수렴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이행 점검한다

도교육청, 공개선발 공약관리위원 22명 위촉식 가져

제3기 전북교육감 공약관리위원회 외부위원 22명이 위촉됐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7일 본청 정책협의실에서 공약관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약관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외부위원 22명과 내부위원 14명 총 36명으로 구성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김승환교육감 3기에는 ‘새롭게 빛나라 전북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

생’,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가벼운 어깨, 함께 하는 학부모’,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소통과 협력,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 등 5대 분야 10대 정책 47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공약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위한 석면해체·제거, 내진보강 등 1,615억 원, 학교 실내체육시설 조성 499억 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운영비 지원 259억 원, 현장 체험학습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876

억 원, 청소년 놀이 공간 확보를 위해 569억 원 ▲교권 존중과 신뢰하는 학교를 위해 교권 보호·교원 치유 지원 5억 원, 교직원 관사 현대화 증축 93억 원, 전라북도교육수원원실 319억 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원도심학교 56억, 농어촌학교 111억 원, 방과후마을학교 77억 원 지원 등 4년 임기 동안 총 7,757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앞으로 공약관리위원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감의 공약이행 상황과 추진실적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의·평가하게 된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황문영 연구원 한국복합재료학회 우수논문상

탄소복합재 구조물 내부 형상 정보·물성치 예측법 연구



전북대학교 황문영 연구원(로스알라모스 연구소-전북대 한국공학연구소,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박사과정·지도교수 강래형)이 최근 대전에서 열린 한국복합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했다. 황 연구원은 ‘동적 특성을 고려된 역설계를 이용한 적층 복합재료 내부의 탄소섬유 프리프레그의 물성 예측’이라는 주제로, 항공우주 분야를 포함해 경량화

가 요구되는 구조물에 널리 활용되는 탄소복합재 구조물의 내부 형상 정보와 물성치 예측 방법에 대해 연구한 결과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김 연구원을 지도한 강래형 교수(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 한국공학연구소 소장)는 “탄소복합재는 사용 용도에 따라 여러 층이 서로 다른 각도를 가지고 적층되어 제작되는데, 복합재로 제작된 이후에는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내부 형상과 적층된 층의 물성치를 알아내기 어려웠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탄소복합재의 외부 거동을 측정하여 내부 정보까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세상과 소통하는 글쓰기 역량을 길러라’

도교육청, 전문 작가 초청 고등학생 대상 글쓰기 워크숍 열어

디지털로 구현되는 초연결 사회의 중요한 역량 중 하나가 의사소통 능력이다. 전북교육청에서는 학년말을 맞아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 작가를

초청해 고등학생 대상 글쓰기 워크숍을 3회에 걸쳐 연다. 만인 저자 시대, 오늘 나의 행복을 위한 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그

동안 문화 소비자에 불과했던 대중이 문화 예술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의 주체가 된 미디어 시대의 조류를 반영해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글쓰기 역량을 길러주고자 기획된 이 행사는 17일 박준 시인의 ‘문화적 글쓰기 훈련법’을 시작으로 내일 이다혜 작가의 ‘재미있고 공감 가는 일상 글쓰기 훈련법’, 20일 최은아 작가의 ‘시험에

통하는 글쓰기 훈련법’까지 이어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계획 정원을 훌쩍 초과할 정도로 실전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다”며, “단순한 글쓰기 특강과는 차별화되는 전문가 특강-글쓰기-피드백의 내용 구성으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글쓰기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